정신문화연구 2007 겨울호 제30권 제4호(통권 109호) pp. 223~249.

研究論文

전장의 시뮬라크르*
– 박영희의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

이 승 원**

Ⅰ. 기념비적 사건으로서의 전쟁서사
Ⅱ. 총력전체제와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
Ⅲ. 전쟁문학이라는 장르의 탄생
Ⅳ. 『전선기행』과 『보리와 병정』의 거리
Ⅴ. 성지순례와 기념비로 양식화된 애도작업
Ⅵ. 위장된 숭고미와 비장미
Ⅶ. 나오며: 미디어, 기억, 전쟁담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기념비적 사건으로서의 전쟁서사

1906년 7월 20일 이인직은 ≪만세보(萬歲報)≫에 「삼진연방(三進聯邦)」이란 논설을 쓴다. 「삼진연방」의 주된 논지는 일본・간도・만주를 연결한 동양 연방을 건설하여 경제상의 일대 진보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만약 삼진연방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가는 멸망하고 인종 또한 감축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에도 독일의 철혈재상인 비스마르크와 같은 인물이 출현하여 국가를 진보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이인직은 주장한다.

이인직은 「삼진연방」을 쓰고 정확하게 이틀 후인 7월 22일 한국 최초의 신소설

* 이 논문은 2007년 5월 19일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의 '20세기 전쟁기념의 비교문화사' 연구팀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주제: 기념비적 공간의 비교문화사)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글이며,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의 수행 결과임(KRF-2005-A020106- AS0005).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 근현대문학 전공(woogong72@empal.com).

인 「혈의누」 첫 회를 ≪만세보≫에 연재했다. 「혈의누」는 청일전쟁의 총소리와 더불어 시작된다. 「혈의누」의 시간적 배경은 청일전쟁을 시발점으로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에 걸쳐있다. 「혈의누」의 줄거리는 이렇다. 일곱 살의 미성숙한 김옥련은 전쟁을 계기로 일본과 미국을 '여행'하면서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한다. 미성숙한 어린 소녀에서 성숙한 사회적 개인으로 성장한 그녀의 꿈은 조선의 문명개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미국 유학생활을 접고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려고 결심한다. 그녀가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꿈을 펼쳤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혈의누」는 그녀의 굳은 결심과 함께 막을 내린다.

이렇듯 「혈의누」는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전쟁서사'가 잠복해 있다. 김옥련은 조선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글쓰기보다는 일본어 글쓰기를 먼저 배웠다. 그렇지만 그녀는 일본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모범적인 미국 유학생이 된다. 이러한 김옥련을 '순수한' 한국인으로 부를 수는 없을 터이다. 이처럼 혼종적인 정체성을 지닌 김옥련은 근대전환기 제국의 틈바구니에 낀 조선 지식인의 한 전형일 것이다. 더욱이 「혈의누」의 남자 주인공 구완서는 이인직이 주장한 '삼진연방'의 내용을 그대로 되받아 자신의 목표는 "우리나라를, 독일국과 같이, 연방을 삼아서,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1]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일본과 만주를 합하여 연방국을 만들겠다는 구완서의 목표는 과연 실현가능한 것이었던가?

「혈의누」가 한국 근대문학사에 이름을 남긴지 30여 년이 지난 1937년 7월 7일 일본은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을 빌미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의 내각총리였던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는 중일전쟁의 목표를 "제국의 확고한 국책에 따라 일만지(日滿支)의 공고한 제휴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의 영원한 화평을 확립하고, 세계평화를 완성"[2]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동양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일본・만주・지나가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식민지 조선을 뒤덮어 갈 무렵인 1939년 10월 5일 "조선 최초의 전쟁문학"[3]이란 찬사를 받은 박영희의

1) 이인직, 「혈의누(45회)」, ≪만세보≫, 1906.10.4.
2) 植村友彦(編輯), 『(近衛文麿公演說訓話集)盡忠報國の精神』(東京: 第一出版社, 1938), 60~61쪽.

『전선기행』이 등장한다.

청일전쟁의 총소리와 함께 시작된 한국 근대문학사는 이제 총력전시대의 전쟁문학과 함께 반세기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본격적인 전쟁문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선기행』은 전쟁과 전장의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했던 것일까? 또한 박영희의 『전선기행』은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 글은 박영희의 『전선기행』에 나타난 '전쟁—전장'에 대한 문학적 재현방식과 이것의 미적·정치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총력전체제와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

1939년 3월 4일, 경성부 태평통 부민관 3층 홀에 식민지 조선의 내로라하는 문인 50여명이 모였다. 문인들뿐만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한성도서, 대동출판, 박문서관, 인문사, 문장사, 학예사 등의 출판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최신 활자미디어를 좌지우지하며 당시의 공론장을 주도해 갔던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또한 이들의 모임과 그 결과를 대중적으로 선전하였다.[4]

문단과 문인들은 중일전쟁 이후 선포된 '국민정신총동원령'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민정신총동원이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은 거국일치와 진충보국의 뜻을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어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용왕매진하는 각오를"[5] 지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조선의 문단과 출판업자들은, "북지(北支)에서 발단하야 중지(中支), 남지(南支)까지 황군의 무훈"으로 빛나는 "성전에 대한 총후(銃後)의 활동"을 계획하였다.[6]

이광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 파견 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김동인, 박영희, 임학수가 조선문단사절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들은 조선 문

3) 鄭人澤, 「朴英熙 著 戰線紀行」, ≪文章≫, 1939.10, 196쪽.

4) 「"펜"部隊陣容」, ≪매일신보≫, 1939.4.8; 「『펜』部隊壯行會」, ≪매일신보≫, 1939.4.13.

5) 植村友彦(編輯), 『진충보국의 정신』, 120쪽.

6) 「北支皇軍慰問의 文壇使節派遣」, ≪조광≫, 1939.5, 127쪽; 「皇軍慰問文壇部隊를 支待하자」, ≪조광≫, 1939.6, 162쪽.

단을 '대표'하는 문단사절로 선출된 것이다. 조선문단사절의 목적은 전선의 황군을 위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북지전선의 견문을 바탕으로 총후의 '반도인'들을 위한 '보고문'을 쓰는 일이었다. 이들 대표들은 북지전선의 전장을 시찰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대리자'의 임무를 떠맡은 셈이다.

조선의 문단과 출판업자들이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 파견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중일전쟁은 일종의 사상전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의 언론은 전쟁의 열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7월 22일에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일전쟁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작업에 돌입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 존재하는 각종 신문을 동원하여 국민의 총단결을 위한 글들을 발표했다. 신문만 동원된 것이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는 다양한 강연회와 좌담회, 영화, 팜플렛, 전시회, 뉴스사진 등을 이용하여 식민지 조선을 총동원 체제로 재구축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판단과는 다르게 식민지 조선인들은 중일전쟁에 무관심했다. 더욱이 조선인들은 중일전쟁의 목적인 '동아 신질서 확립'을 믿지 않았다. 조선인들은 중일전쟁이 침략전쟁임을 간파했다. 조선인들은 일본의 전쟁보도를 믿지 않았으며, 전시동원정책에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 일본은 조선인 지원병 이인석(李仁錫)[7]의 죽음을 기반으로 전시동원체제를 호도하여 황민화정책의 상징으로 부각했다. 그렇지만 조선인들은 이 또한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희생당한 조선 청

7) 1939년 6월 22일, 중일전쟁에 지원한 조선인 지원병 이인석(李仁錫) 상등병이 죽자 일본은 그를 영웅화함으로써 조선인들을 전쟁 속으로 동원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그에게 금조훈장을 추서했다.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 당시 조일함(朝日艦)의 수뢰장 히로세 다케오(廣瀨武夫)가 죽자 군신(軍神)으로 칭송하며 러일전쟁을 호도한 것과 유사하다. 러일전쟁 때에도 일본의 각종 신문들은 히로세 다케오의 전사를 칭송하며 무사도의 강화와 살신성인 정신을 강조하였다. 조선인 지원병 이인석의 죽음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전되었다. 그의 표충비(表忠碑)가 건립되었으며, 내선일체의 모범으로 부각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미디어는 연일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그의 무훈을 칭송하였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보도는 다음과 같다. 和久正志, 「仰ぎ! 故李仁錫上等兵の殊勳」, ≪삼천리≫, 1940.4; 「朝鮮文化及産業博覽會, 志願兵篇」, ≪삼천리≫, 1940.5; 「君國多事의 秋에 志願兵(志望者) 十萬突破, 志願兵 母姉에 送하는 書」, ≪삼천리≫, 1940.7; 「志願兵士諸君에게, 十萬突破의 報를 듣고 全朝鮮青少年諸君을 激勵하는 書」, ≪삼천리≫, 1940.7; 「文士部隊와 「志願兵」」, ≪삼천리≫, 1940.12; 柳觀鎬, 「李仁錫 上等兵의 遺族을 차저서」, ≪여성≫, 1940.4 등이다. 잡지 이외에도 각종 신문에서 이인석의 전사를 다뤘다. 1943년에는 朴永郎 著, 『李仁錫上等兵』(大同, 1943)이라는 평전이 출간되었다.

년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사상전을 펼쳤지만 그리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의 전쟁에 조선인들이 희생된다는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중시켰다.[8]

조선총독부는 각종 미디어를 동원하여 중일전쟁을 선전선동 했지만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일본은 중일전쟁의 기억을 '성전(聖戰)'의 기억으로 재구성하여 조선인들의 뇌수에 각인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동원정책의 정당성을 설파하려 했다. 일본은 중일전쟁이 결코 침략전쟁이 아닌 동양평화를 위한 전쟁임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이를 믿는 조선인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들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중국의 장학량(張學良)이나 장개석(蔣介石)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으며, 일본의 패배를 바라는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에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조선인으로 구성된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이 조직되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지전선의 군인들을 위문하는 것보다는 보고문을 쓰는 일이었다. 일본은 조선인이 직접 전쟁을 보고 관찰한 보고문을 사상전의 무기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다.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이 북지전선으로 떠나자 조선 문단의 대표적인 문인들이 그들에게 전별사를 바쳤다. 이광수는 조선문인이 지나사변의 현장을 직접 조선 민중에게 알리는 "조선 문학사상에 신기원을" 긋는 행사라며 조선문단사절을 격찬하였다. 김기진은 "흥아의 문화를 연구"하여 반도 문단에 돌아와 주기를 간청하였다. 정인섭은 황군들이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동아의 신질서에 조직되는 새로운 지나 관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잘 통찰하여 그 자연풍토의 미"를 조선 문단에 알려주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김문집은 3인의 조선 문단사절이야말로 "조선민족의 국가적 일체화에의 육탄 3용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조선 문단은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의 전시 시찰을 계기로 조선 문단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불태웠다. 조선문단사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김동환의 말처럼, "전선과 참호를 방문하여" "피 뛰는 감격"을 재료로 삼아 "『보리와 병대』 이상의 명작을 내어 총후 민중"에게 선사하는 것이었다.[9]

조선문단사절은 약속한 대로 보고문을 썼다. 제일 먼저 생산된 귀환 보고문은

8) 宮田節子(著)/李熒娘(譯),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一潮閣, 1997)의 제1장을 참조.

9) 「「朝鮮文壇使節」 特輯, 北支戰線에 皇軍慰問 떠남에 際하야」, ≪三千里≫, 1939.6, 238~241쪽.

임학수의 『전선시집』(인문사, 1939.9.15)이었다. 그리고 20일 후 박영희는 『전선기행』(박문서관, 1939.10.5)을 세상에 내놓았다. 정식적인 '보고문학'의 일종으로 간행된 『전선기행』과 『전선시집』은 당시 총력전체제 하에 있었던 식민지 조선 문단의 극찬을 받았다. 이광수는 『전선시집』이야말로 "조선인 시집으로 된 최초의 사변제재시(事變題材詩)"[10]라며 칭송하였다. 정인택은 박영희의 『전선기행』은 "조선 최초의 전쟁문학"일뿐만 아니라 "문학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중(至重)한 정신"의 보고라는 독후감을 썼다.[11]

임학수는 『전선시집』과는 별도로 「북지견문록」을 시발로 하여 총 5편의 기행문을 썼는데, 당시 조선의 중요한 문학(문화) 미디어였던 ≪문장≫, ≪삼천리≫, ≪여성≫, ≪가정지우≫에 각각 실렸다.[12] 박영희는 『전선기행』을 다시 ≪동양지광≫에 일본어로 번역하여 연재하였다.[13] 그러나 그들 중 김동인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의 파견은 이후 일본제국주의 협력 문인단체가 결성하게 되는 시발점이었다. 1941년 12월 22일 오후 4시 부민관 대강당에서는 임전보국단(臨戰報國團)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1943년 4월 17일에는 기존의 조선문인협회, 조선하이쿠작가협회(朝鮮俳句作家協會), 조선센류협회(朝鮮川柳協會), 국민시가연맹(國民詩歌聯盟) 등 4개 단체가 해산함에 따라 조선문인보국회(朝鮮文人報國會)가 부민관 대강당에서 결성되었다. 이에 박영희는 조선문인보국회 총무부장(국장)의 직을 수행하였다. 조선문인보국회는 1943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종군작가강연회를 개최하고, 1943년 11월 5일에는 출진학도격려대회 등의 일본 제국주의 협력활동을 펼쳤다.[14] 그리고 1943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동아문학자대회(大東亞文學者大會)에 이광수, 유진오, 박영희가 참가하였다.[15] 이처럼 황군위

10) 이광수, 「『전선시집』 서문」, 『전선시집』(인문사, 1939), 5쪽.

11) 정인택, 「朴英熙 著 戰線紀行」, ≪文章≫, 1939.10, 196쪽.

12) 임학수의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皇軍慰問文壇使節 林學洙, 「北支見聞錄 1~3」, ≪文章≫, 1939.7~9; 林學洙, 「前線兵士를 慰問하고」, ≪家庭之友≫, 1939.7; 皇軍慰問文壇使節 林學洙, 「北支那女子—華麗한 北京과 그 姑娘」, ≪女性≫, 1939.7; 林學洙, 「同蒲線의 娘子軍—北支那의 女子」, ≪女性≫, 1939.8; 從軍文士 林學洙, 「北京의 朝鮮人」, ≪삼천리≫, 1940.3.

13) 박영희는 ≪東洋之光≫, 1939.9월호와 1939.10월호에 「戰線紀行」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전선기행』을 번역하여 연재하였다. 그러나 총 2회로 연재는 중단되었다.

14) 民族政經文化硏究所(編), 『親日派群像』(上)(여강출판사, 1986, 영인본); 革新出版社(編), 『民族正氣의 審判』(혁신출판사, 단기4282[1949])을 참조.

문조선문단사절의 결성과 파견은 이후 총력전체제 하의 조선 문단을 재편하는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III. 전쟁문학이라는 장르의 탄생

박영희의 『전선기행』은 일종의 기획된 사건이었다.[16] 박영희는 북지전선을 시찰하기 이전인 1939년 1월 1일 김동환, 김기진과 함께 전시기(戰時期) 조선작가의 사명에 대해서 좌담회를 가졌다.[17] 여기서 박영희는 전쟁문학을 일종의 보고문학으로 판단했다. 이후 그는 전선시찰을 다녀온 후 전쟁문학을 "지나사변 이후에 생긴 말"로써 그것은 "신단계(新段階)의 문학운동"이자 "정책의 예술화가 아니라 일본정신의 예술화와 문학화"라고 규정하였다. 박영희에 따르면 일본정신은 "세계정신의 중추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 정신 위에서 창작되는 문학적 작품은 세계문학의 이상을 만들어낼" 것임에 분명하였다. 박영희에게 전쟁문학은 "국민문학이 되고, 애국문학이" 되어야만 했다.[18]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총화한 실험적인 작품이 곧 『전선기행』이었던 셈이다.

『전선기행』이 출간된 이후 식민지 조선은 전쟁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논자가 최재서였다. 최재서는 전쟁문학의 본질을 전선의 병정들과 총후의 국민들이 동일한 "국민의식에 연결"되는 수단으로 파악하였다.[19] 이러한 최재서의 발언은 보편적인 전쟁문학 일반을 지칭하는

15) 「朝鮮側の發言集— 11月中旬東京に於ける大東亞文學者大會に於いて爲せる朝鮮側の發言集」, ≪大東亞≫, 1943.3. 여기에 실린 이광수, 유진오, 박영희의 발언 제목은 다음과 같다. 「大東亞精神の樹立」に就いて」(香山光郎, 舊名 李光洙), 「大東亞精神の强化普及」に就いて」(兪鎭午), 「文學による大東亞戰完遂の方法」に就いて」(芳村香道, 舊名 朴英熙).

16) 박영희의 『전선기행』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윤식, 「『전선기행』 속의 조선 문인들의 표정: 김동인의 두 가지 모험」,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정선태,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론과 종군문학: 『보리와 병정』과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권 2호(2006), 131~155쪽.

17) 朴英熙·金基鎭·金東煥, 「『戰爭文學』과 『朝鮮作家』: 戰爭과 文學과 그 作品을 말하는 座談會」, ≪삼천리≫, 1939.1.

18) 박영희, 「戰爭과 朝鮮文學」, ≪인문평론≫, 1939.10, 39~40쪽.

19) 최재서, 「전쟁문학」, ≪인문평론≫, 1940.6, 54~60쪽.

것이 아니었다. 최재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기존의 전쟁문학이 전쟁의 공포와 고통을 너무 극대화함으로써 전쟁 기피의 관념을 유발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전쟁문학이란 전쟁의 폭력에 대항하는 휴머니즘을 내포한 문학이 아닌, 식민지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국민의식의 결속에 중심을 둔, '비국민'의 '국민—되기'를 추구하는 문학을 뜻하는 것이었다.

문인들의 논의에 의해서만 전쟁문학이 선전된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다양한 전쟁문학이 잡지라는 미디어를 통해 보급되어 가상의 적을 양산하였다. 먼저 일본의 전쟁문학이 잡지 ≪문장≫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역되었다.[20] 여기에는 일본 최고의 종군작가라고 불리는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삼천리≫에는 애국미담(愛國美談)과 지원병(志願兵)의 일기가 실렸다.[21] 애국미담과 같은 총후미담(銃後美談)을 김문집은 "민족적 교양이 독자의 예술적 정서와 화학작용을"[22] 일으킨 결과라며 과찬한다. 이처럼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의 파견을 전후로 하여 식민지 조선은 전쟁문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었다.

박영희 일행이 황군위문을 다녀온 지 5개월 뒤이자 『전선기행』이 출간된 지 24

20) 1939년 3월부터 ≪문장≫에는 '전선문학선(戰線文學選)'이란 코너가 마련되어 일본의 전쟁문학이 집중적으로 번역되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火野葦平作「흙과 兵隊」에서」, 1939.3; 「火野葦平作「담배와 兵隊」에서」, 1939.3; 「林芙美子作「戰線」에서」, 1939.3; 「敵前上陸」, 1939.4; 「별 밝던 하로 밤」, 1939.4; 「大部隊의 敵」, 1939.4; 「戰場의 道德」, 1939.5; 「特務兵隊」, 1939.5; 「上空一五〇〇米」, 1939.5; 「陸軍飛行隊」, 1939.6; 「建設戰記」, 1939.6; 「觀戰」, 1939.6; 「病院船」, 1939.8; 「東洋의 南端」, 1939.8; 「非戰鬪員」, 1939.8; 「駐屯記」, 1939.8; 「蘇聯機公襲」, 1939.8; 「匪賊」, 1939.8; 「戰場의 正月」, 1939.10; 「林芙美子作「戰線」에서」, 1939.10; 「湖沼戰區」, 1939.10; 「戰場雜感」, 1939.10; 「戰場의 五月」, 1939.10; 「將軍의 얼굴」, 1939.10; 「散文詩」, 1940.2; 「「보리와 兵丁」에서」, 1941.2; 「林芙美子作「戰線」에서」, 1940.3; 「밤의 火線」, 1940.4; 「文學小隊長」, 1940.4; 「「防空壕內」에서」, 1940.5; 「恐怖의 一日」, 1940.5.

21) 「護國忠勇의 半島男兒—北支에서 戰死한 尹相根君」, 1940.7; 「國家干城이 못됨을 恨嘆하고 自殺한 李昌萬군의 殉死!」, 1940.7; 「이 志願兵을 보라—熱血青年의 鬪志」, 1940.10; 「軍人精神의 龜鑑—模範志願兵에게 部隊長의 賞狀」, 1940.10; 「愛國少女 美談」, 1940.10; 「志願兵 美談」, 1940.10; 「銃後愛國美談(半島民衆의 愛國熱!)」, 1940.12; 「軍國美談」, 1941.2; 「愛國美談」, 1941.3; 「愛國美談」, 1941.4; 「愛國美談」, 1941.6; 「協和會活動과 朝鮮人 愛國美談」, 1941.11; 「愛國美談」, 1941.12; 「第1區隊 第3訓練班 重光國雄, 志願兵일기」, 1941.1; 「第1區 第1訓練班 大山正隆, 志願兵일기」, 1941.1; 「第5區隊 3班 武澤常秀, 志願兵일기」, 1941.1; 「陸軍 上等兵 兒島義英, 志願兵일기」, 1941.1.

22) 金文輯, 「新文化主義的 文藝時評—非常時에 處한 文壇의 自覺」, ≪삼천리≫, 1938.11, 221쪽.

일 후인 1939년 10월 29일, 조선문인협회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든지 또는 국민총력운동이든지 국가를 위하야 멸사봉공하고 신도실천(臣道實踐)에 매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위문대와 위문문을 전지에" 보냈으며, "경성과 평양 등지에서 대강연회를 개최하고 일반 민중에게 일본정신과 내선일체를 설명"하였다.[23]

조선문인협회의 건설과 함께 전쟁문학에 대한 논의는 점차 가열되었으며, 중일전쟁 3주년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중일전쟁 3주년이 되는 1940년 박영희는 전쟁과 전쟁문학에 관한 글들을 집중적으로 여러 매체에 기고하였다. 먼저 그는 1940년 7월 6일 중일전쟁 3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운동의 전시체제」란 글을 ≪매일신보≫에 발표하였다. 박영희뿐만 아니라 ≪매일신보≫ 1940년 7월 6일자 제10면 문학편에는 "사변 3주년과 반도문화의 여명"이라는 제목 하에 이광수의 「황민화와 조선문학」, 정인섭의 「총후문학과 개척문학」, 김동환의 「전승과 문화의 융성」이 특집으로 실렸다. 박영희는 「문학운동의 전시체제」에서, "사변 이후 반도인의 문학운동"은 "전시 생활면의 국민적 해석과 그 사상적 신경지(新境地)"를 개척하는 것이며, 사상전에 포함된 문학전의 신경지란 조선문인협회를 중심으로 "국민문학"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4] 다음으로 박영희는 1940년 8월 15일 ≪매일신보≫에 「포연 속의 문학」이라는 글을 연재하였다. 자신의 본명과 창씨개명인 요시무라 고도(芳村香道)를 함께 병기한 이 글은 8월 20일까지 총 5회 분량으로 연재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잡지 ≪삼천리≫는 중일전쟁 3주년 특집을 마련하였다. ≪삼천리≫의 주간인 김동환은 "탄환과 펜은 다 같은 금속으로 되었다 하니 전선에 나가 있는 병사 여러분이나 국경 안에 있어 붓대를 들고 있는 우리나 그 임무는 다 연속된" 것이라며 문인과 전사를 동일시하면서 중일전쟁 3주년을 기념하였다.[25] 이 특집에서 박영희는 중일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동양평화를 위한 성전으로 아국(我國)의 역사상에 특기할 것"이자 "세계 역사상에 특기할 사실"이라며 운을 띄운 후, 중일전쟁이 이제 "장기전과 아울러 장기 건설에 들어가고" 있기에

23) 芳村香道, 「新體制를 맛는 文學—文協 一週年에 際하야(下)」, ≪매일신보≫, 1940.11.7.
24) 박영희, 「文學運動의 戰時體制」, ≪매일신보≫, 1940.7.6.
25) 三千里社主幹 朝鮮文人協會幹事 金東煥, "彈丸과 펜의 因緣", 「事變三周年記念 『聖戰記念文章』 特輯」, ≪삼천리≫, 1940.7. 92~93쪽.

"국가에 대한 충용을 일층 더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6] 문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용이란 결국 "개성의 소아적(小我的) 발휘"는 지양하고 "집단적 개성의 새 경지"를 개척하는 길이었다.[27] 문인의 입장에서 집단적 개성의 발휘란 멸사봉공의 문학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멸사봉공의 문학이란, "조국을 위해서 승리를 바라보고 돌진하려는 데 일심으로 총력을 다하는 병사의 사상과 동일한" 것인 "포연 속의 문학"을 뜻한다.[28] 또한 그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도 "인생을 위한 예술"도 아닌 "국가를 위한 예술"을 가리킨다. 이러한 "신념의 개성화와 이 개성의 문학적 표현"이야말로 신체제 하에서 문인들이 나가야할 길인 것이다.[29] 박영희를 비롯한 일군의 식민지 지식인들에게는 전쟁을 윤리적 차원이나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특정한 태도와 신념이 중요했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나아갈 미래의 좌표였다.

이렇듯 1939년 4월 15일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의 북지전선 파견은 식민지 조선의 문학계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일대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이는 문학계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총후의 총력전체제에서 '사상전=문학전'을 펼치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총후 조선 민중들이 전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반이었다. 요컨대 박영희의 『전선기행』은 전쟁문학이라는 장르의 탄생과 신체제 문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전선기행』을 시발로 '전쟁문학=애국문학=국민문학'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텍스트는 단순히 문자의 조합물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행위양식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역사를 규정하고 창조하는 기억의 집적물이다. 전쟁문학이라는 장르의 탄생은 단순히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의 차원을 넘어 선다. 니체의 말처럼, 기념비적 역사는 서로 다른 사건을 유사하게 만들고 일반화시키며 동일시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건의 원인을 은폐하면서 결과만을 기념비화 하는 것, 즉 하나의 전범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한 민족의 명절이나 전쟁 기념일에 대한 경축 행사가 그 대표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30] 전쟁문학은 전시체제를 반영하

26) 國民精神聯盟囑託 朝鮮文人協會幹事 朴英熙, "聖戰第三週年을 마지면서," 「事變三周年記念 『聖戰記念文章』 特輯」, ≪삼천리≫, 1940.7, 89~90쪽.
27) 芳村香道(舊名 朴英熙), 「砲煙 속의 文學(3)」, ≪매일신보≫, 1940.8.17.
28) 芳村香道(舊名 朴英熙), 「砲煙 속의 文學(1)」, ≪매일신보≫, 1940.8.15.
29) 芳村香道, 「新體制를 맛는 文學—文協 一週年에 際하야(下)」, ≪매일신보≫, 1940.11.7.
30) 프리드리히 니체(저)/이진우(역), 「반시대적 고찰」, 『비극의 탄생·반시대적 고찰』(책세상, 2005),

고, 구성하고, 추진하려는 사회적·문화적·문학적 실천행위의 일부였다. 또한 전쟁문학은 신체제를 구성하려는 욕망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개입이었으며 '전쟁—전장'의 기억을 서사화 하는 역사적 기념물이었다. 이때의 역사적 기념물이란 기념비적 '역사—기억'의 서술에 의해 축적된 결과물이다.

IV. 『전선기행』과 『보리와 병정』의 거리

북지전선을 다녀 온 박영희는 어떤 방식으로 전장의 모습을 형상화할지 고민에 빠진다. 조선문단사절의 명목상의 목적은 북지전선의 황군을 위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선을 시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학적 텍스트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동반해야만 했다. 중일전쟁을 "동양 영원의 평화 확립에로 매진하는 근본정신"으로 파악한 박영희는 "일반민중은 물론 지금까지 민족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들도 다 전향을 선언하고 단결하여 황민(皇民)으로서의 의무감을 통감"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였다.[31] 문학자로서 이미 전향을 선택한 박영희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 조선문단에는 전쟁문학이 있을 수 없다고 비관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당한 말이다. 우리는 전쟁을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것이다.
> 하나 조선문인들의 현지파견을 여기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결과 여하에 따라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만으로는 조선문단에 전쟁문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하나 비재(菲才)의 내가 그 임에 선정되어서 그 중임을 다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신념만은 있지만은—김동인 임학수 양형(兩兄)의 재필(才筆)로 어쨌든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은 확실한 일이다.
> 이번 우리들 황군 위문에는 두 개의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는 우리 황군에게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저 위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전장의 광경을 문장으로 옮겨서 조선민중에

305~306쪽.

31) 박영희, "戰爭과 文學者의 任務," 「「朝鮮文壇使節」 特輯, 北支戰線에 皇軍慰問 떠남에 際하야」, ≪三千里≫, 1939.6, 234쪽.

> 게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중대한 임무라 생각한다.[32]

박영희에게 북지에서 싸우고 있는 황군을 위문하고 그 경험을 작품화하는 것은 "전쟁의 실감을 상상할 수 없"는 "총후의 조선 민중"의 "애국적 적성"을 표하는 일이자 "국민의 의무감을 일층 더하여" "황국의 일 병사로서 마음"을 지니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33] 더욱이 황군위문의 경험을 문학으로 재현하는 것은 전쟁문학이라는 장르가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에 전쟁문학의 새로운 깃발을 올리는 일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박영희는 자신의 전선 시찰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학화해야만 했던 것이고, 그 방법적 차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 "전쟁문학의 최고봉"[34]인 히노 아시헤이의 『보리와 병정』이 총독부 도서과 통역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에 의해서 1939년 7월 15일 조선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는 중일전쟁 2주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초판 1만 2천부가 매진되었다.[35] 그만큼 히노 아시헤이의 『보리와 병정』은 조선문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이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보리와 병정』은 제18사단 보병 114연대 중지파견군 보도부에 전속된 히노 아시헤이가 서주회전(西州會戰)에 종군했을 때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전기(戰記)이다. 이 작품은 일본뿐만 아니라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읽힌 일본 전쟁문학의 대표작이다.[36]

앞서 말했지만, 박영희는 북지전선 시찰을 보고하기 위해서 책 한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기행문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기행문체로 하면 좀 딱딱해" 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었다. 그래서 박영희는 "주인공도 만들어서 소설체로 한권 써볼까" 하고 "「맥과 병대」도 다시금 보고" 있었다.[37] 일본어판 『보리와 병대(麥と兵隊)』를 읽고 있었던 박영희는 니시무라 신타로에 의해서 조선어판 『보리와 병정』이 출간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보리와 병정』이 번역됨에 따라 계획뿐이었던 전쟁문학이라는 장르를 본격적

32) 위의 글, 234~235쪽.
33) 위의 글, 235쪽.
34) 「戰爭文學의 最高峰 朝鮮版 "보리와 兵丁"」, ≪매일신보≫, 1939.6.4.
35) 「出版界의 初紀錄」, ≪매일신보≫, 1939.7.15.
36) 정선태, 앞의 논문, 137~138쪽.
37) 박영희·김동인·임학수, 「문단사절귀환보고: 황군위문차 북지에 다녀와서」, ≪삼천리≫, 1939.7, 12쪽.

으로 실험할 수 있었다.

> 이 책 가운데는 전투의 기록이 있는 것뿐 아니라 개별적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있으며, 총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아름다운 시상이 또한 섞여 있으며, 황군의 고노(苦勞)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전의 이상이 군데군데 표현되어서 읽는 사람의 감정을 다방면으로 움직이게 한다.…우리는 일상 황군의 전선에서의 고노를 말한다. 그것은 전지에 가서 그 생활을 목도하지 못한 까닭이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황진(黃塵) 속에서 황군은 어떠한 고생을 하고 있는가. 또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으며,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책 속에서 발견하였다.…생생하게 살아 있는 기록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눈을 감고 넓은 지나의 전선을 그려 보았다. 그 각각 인물과 장면은 살아 있는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38]

박영희는 전선을 시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영희를 비롯한 조선문단사절은 히노 아시헤이처럼 전선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없었다. 그들이 본 것은 드넓은 보리밭을 지키고 있는 보초병, 포탄에 의해 무너진 성벽, 지나인 포로 17명 정도였다. 또한 그들은 죽은 병사의 묘를 참배하기도 했다. 조선문단사절은 기차 창밖으로 "인가도 없고 광막한 벌판이 끝없이" 펼쳐진 "만 리 평원"의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감상에 젖거나, "산정(山頂)에 총 끝에 칼을 꽂아 든 보초가 한 명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거나, "온갖 나라의 문명과 인종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모두 교류하고 있는 중국"의 거리를 배회하였다.[39] 그렇기 때문에 박영희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전장의 모습을『보리와 병정』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는『보리와 병정』을 통해서 "지나의 전선을 그려"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박영희의『전선기행』을 관통하는 메타포는 보리밭과 황진이다. 동포연락선(同蒲線鐵路)의 군용열차를 타고 북지로 향하는 박영희의 시야에 들어온 전선은 끝없이 펼쳐진 보리밭과 황진만장(黃塵萬丈)의 평야였다.

38) 박영희,「『보리와 병정』: 名著名譯의 讀後感(下)」,≪매일신보≫, 1939.7.27.
39)「문단사절귀환보고」, 12쪽.

> 차창으로 내다보면 올 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보리밭이 끝없이 뻗혀서 있다. 그러나 올 때보다는 보리가 갑절이나 자란 것 같다.…이것은 4월의 맥파(脈波)일 것이다. 이곳은 북지에도 서남단(西南端), 황하를 격(隔)하기 불과 수 십리인, 아주 산협 지방이라, 그리 광활하지는 못하나 그래도 가다가다 상당히 넓은 보리밭이 끝없이 보이기도 한다. 시냇물이 없어서 산야가 한 가지 뿌수수하게 보이며, 수림(樹林)이 없는 황토산이라 청신한 풍경은 없으나, 그 대신 군데군데 우물이 있고, 당나귀의 물 푸는 것이 또한 풍경화의 한 폭이 될 만하다.[40]

박영희는 북지전선으로 갈 때와 올 때 모두 '기차 안'의 차창을 통해서 아득히 펼쳐진 보리밭을 보았다. 기차 안과 기차 밖의 풍경은 '차창'을 통해서 분리된다. 기차 안에서 기차 밖에 펼쳐진 북지의 보리밭은 그에게 "풍경화의 한 폭이" 될 만한 광막한 대륙의 이미지였다. 조선문단사절을 실은 '기차'는 끝없는 보리밭을 헤치며 달려갔다. 그들은 전장에 왔으나, 전투를 보지 못했다. 그들이 본 것은 광막한 대륙에 끝없이 펼쳐진 보리밭이었다.

박영희에게 보리밭은 일종의 환유이다. "전선의 포화 속에"서도 "대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준동(蠢動)하던 적의 자최는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이며, 그곳에 "평화의 일장기가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41] 박영희는 보리밭과 황진을 통해 전장의 참혹함보다는 황군의 위대함을 발견한다. 그는 기차 안에서 '보리밥'과 '보리떡'을 먹는 황군의 모습 속에서 "전선의 병정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큰 공적을 내고" 있음을 생각하며 "총후의 국민은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그 나머지 재물을 황군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낀다.[42] 전선에서 고생하는 황군의 은택으로 살아가는 총후의 반도인인 박영희. '보리밭→전장(전쟁)→국가→동양평화→세계평화'로 계열화되는 보리밭의 풍경. 박영희의 상상 속에 그려진 이 풍경의 실체는 무엇일까. 히노 아시헤이의 보리밭은 전장의 거친 숨결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현장이었다.

> 먼데를 바라본즉 무한한 보리밭 속으로 길이 뚫려 있는데…유한(幽閑)한 풍경

40) 朴英熙,『戰線紀行=皇軍慰問朝鮮文壇使節報告書=』(博文書舘, 1939), 7쪽.
41) 위의 책, 12~13쪽.
42) 위의 책, 74쪽.

> 이다.…병정의 복부에는 누구나 땀에 적신 천인침(千人針)을 두르고 신부(神符)를 엇메고 있다.…자기 발이 아닌 것 같은 발이 된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때로는 너무 아프면 적병(敵兵)이나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러케까지 생각할 때가 있다.…이 곤고(困苦)를 참고 이겨내고 가는 용기에는 내가 나를 놀라는 때가 있다. 내던지듯 쭉—뻗고 있는 그야말로 더럽고 때 묻은 병정의 발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존엄함을 느끼는 것이다.…크리크가 많아서 가는 데마다 황토언덕이 있다. 망망한 맥전중(麥田中)을 먼지의 행군이다.[43]

히노 아시헤이는 황토 언덕을 넘고 "망망한 보리밭 속"을 "자기 발이 아닌 것 같은 발"을 이끌며, "자기 발을 학대하면서" "먼지의 행군"을 했다. 무료한 행군보다 전투가 더 낫다고 느끼는 히노 아시헤이의 감각이야말로 실제 전쟁에 참가한 자가 체험한 전장의 실체였을 것이다.

> 새 전장을 향하야 염천(炎天)에 타면서 황진에 싸이면서 진군하고 가는 것이다. 나는 그 풍경을 무쌍하게 아름답다고 느꼈다. 나는 그 진군에서 치받쳐 오르는 강한 힘을 느꼈다. 맥맥히 흐르고 넘쳐가는 힘센 물결을 느꼈다. 나는 자신이 그 장엄한 맥동(脈動) 속에 있는 것을 느낀 것 같다. 나는 이 광막한 회북(淮北)의 평야에 와서 이 굉장한 보리밭에 오직 망연하게 되었다. 그 흙에 달라붙은 생명력의 굳센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것은 꺽진 굳셈이다. 나는 지금 그 보리밭 위를 확고한 발씨로써 밟고 완연히 진군하고 가는 군대를 바라보고 그 넘치는 치받치고 쇄도하여가는 생명력의 굳셈에 가슴이 찔렸다. 나는 조국이란 말이 산뜻하게 내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44]

북지전선에 펼쳐진 보리밭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었다. 보리밭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한 힘이 약동하고, 장엄하며, 굳센 생명력을 지녔다. 보리밭의 풍경에 대한 히노 아시헤이의 수사는 '조국'이라는 말로 집중된다. '아름다움=강함=장엄=생명력'은 "산뜻하게 내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조국'을 형상하기 위한 보조적인 표현이다. 즉 위의 인용문에서 보리밭의 풍경을 묘사하기 위

43) 火野葦平(著)/西村眞太郎(譯), 『보리와 兵丁』(朝鮮總督府, 1939), 122~125쪽.
44) 위의 책, 222쪽.

해서 표현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조국'을 향해 일제히 '진군'하는 단어의 행렬인 셈이다. 히노 아시헤이가 보리밭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조국애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투에 직접 참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히노 아시헤이에게 보리밭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다. 그에게 보리밭은 매복해 있는 중국군에 의해 일본군이 죽은 장소이자, 중국군의 총탄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히노 아시헤이는 보리밭의 풍경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조국애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히노 아시헤이와는 달리 박영희가 바라본 보리밭은 어떤 면에서 보리밭 그 자체가 아니다. 박영희는 지속해서 『보리와 병정』을 염두에 두고 『전선기행』을 썼다. 그는 『보리와 병정』에서 "성전의 이상"과 "황군의 전선에서의 고노"와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황진 속에서" 고생하는 황군의 모습을 취사선택했다.[45] 박영희가 발견한 보리밭과 황진은 가라타니 고진의 말처럼 일종의 '풍경의 발견'이었다. 박영희는 『보리와 병정』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구성된 보리밭의 이미지를 북지전선의 보리밭에 투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그가 이미지화한 북지전선의 최종 풍경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그러나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반드시 황군이 서서 지키고 있다. 그의 정의의 총검이 번쩍이고 있는 것이다. 어찌 황군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곳을 지날 것이랴!
> 황군의 그 충용한 정신도 결국은 일본정신의 정화이지마는 그 정신이 가는 곳마다 정의와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46]

박영희가 북지전선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전투는 이미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보리와 병정』에서처럼 북지전선의 보리밭은 더 이상 생과 사의 갈림길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박영희에게 북지전선의 보리밭은 황군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정의와 평화의 깃발이 나부끼는 공간으로 재현된다. 이렇게 본다면 정선태의 지적처럼 박영희의 『전선기행』에 등장하는 전쟁의 얼굴은 "관념이라는 물감으로

45) 박영희, 「『보리와 병정』: 名著名譯의 讀後感(下)」, ≪매일신보≫, 1939.7.27.
46) 박영희, 『전선기행』, 13쪽.

덧칠한 것"[47]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전투를 경험하지 못한 박영희의 관심은 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장의 모습을 어떻게 총후의 민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더군다나 박영희의 관념은 단순히 관념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 관념은 언제나 2등 국민인 식민지 조선인이 어떻게 하면 '일본국민—되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나온 문학자 박영희의 실천적 태도의 산물이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에게 중일전쟁은 '일본국민—되기'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자, '비국민'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박영희는 북지전선으로 떠났고, 황군의 위업과 일본정신을 미화한 『전선기행』을 집필했던 것이다.

V. 성지순례와 기념비로 양식화된 애도작업

1939년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조선문단사절은 '성전'의 현장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을 참배하였다. 참배를 마친 조선문단사절은 4시 25분발 북행열차로 전선을 향해 떠났는데, 이들을 전송하기 위해 문단의 유지들과 출판계 및 문우들 약 50여명이 경성역에 운집하였다.[48] 황군위문을 떠나기 전에 조선문단사절이 참배를 한 조선신궁은 일본 건국신화의 주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祖大神)와 메이지 천황을 제신(祭神)으로 들인 곳이다. 조선신궁에는 천황의 상징인 삼종신기(三種神器)의 상징물들이 일본에서 공수되어 보관되어 있었으며, 식민지 조선인들은 이 상징물들을 향해 참배해야만 했다.

조선신궁을 참배한 조선문단사절은 똑같은 국민복 복장으로 전선으로 향했다. 그들은 수통을 메고,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휘장이 박힌 전투모를 썼으며, 왼쪽 팔에는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이라는 완장을 찼다.[49] 이들이 북경에 도착한 것은 4월 16일 오후 1시였다. 조선문단사절은 위문품 수송에 말썽이 생겨 북경에서 머물다가 22일에야 북지전선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22일 북경을 떠나 목적지인 운

47) 정선태, 앞의 논문, 151쪽.
48) 「文壇部隊壯途에 昨日午後一路北으로」, ≪매일신보≫, 1939.4.16.
49) 박영희, 『전선기행』, 39쪽.

성(運城)에 도착한 것은 25일 오후 5시였다.

북경을 떠나기 전날 조선문단사절은 노구교와 만수산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성동문(城東門)을 지나 노구교로 갔다. "북지사변의 발단이 이곳에서 일어났으니, 복받쳐 올라오는 감회, 또한 금할 수 없으나, 이로써 동양의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이 시작된 데도 또한 감개없지 않다."[50] 박영희는 만수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북지전선을 조망한다.

> 산상(山上)에 올라, 사변발단기념비 앞에 서서, 평야를 내려다보니, 황량한 초원에, 바람이 또한 급한데, 과거를 회상하며, 황군의 격전을 생각하며, 흉리(胸裡)가 억색(抑塞)하야, 묵묵히 섰을 뿐이다. 조금 건너가면 같은 사구(砂丘)에 거대한 충혼비가 서 있다. 우리는 이 비석 앞에 가서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여 예(禮)하면서, 호국영령을 위로하였다.[51]

충혼비에 새겨진 호국영령들에게 박영희는 참배를 한다. 박영희는 전몰자에 대한 애도의 일환으로 호국영령의 충혼비에 참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전선기행』의 문맥 속에는 이들이 어떤 상황과 이유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헌납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 문학은 집단적인 기억을 허구화하는 예술적 장치로 기능한다. 충혼비에 대한 애도작업은 박영희 개인의 행위이다. 하지만 그의 회상기억 속에 잠재하고 있는 전몰자들에 대한 기억은 박영희 개인의 기억을 넘어 전시기 일본이 만들어낸 집단기억을 반영한 산물이다. 즉 중일전쟁에 관한 기억의 관리자는 국가인 것이고, 국가가 조성한 기억의 아카이브를 통해서 박영희의 기억은 형성된다.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박영희가 그들을 애도하고, 그들의 죽음과 간접적으로나마 합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시 보도문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에 의해 구성된 기억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박영희의 중일전쟁에 대한 '회상'은 충혼비라는 기념물로부터 촉발되었다. 따라서 박영희의 중일전쟁에 대한 기억은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충혼비라는 매체가 그의 기억을 되살려낸 것에 다름 아니며, 전쟁은 충혼비를 통해 하나의 집단적 이미지(像)가 된다. 일례로 박

50) 위의 책, 50쪽.
51) 위의 책, 50~51쪽.

영희는 낭자관(娘子關)에 산재한 전쟁의 흔적을 보면서 "일찍이 황군의 분투격전을 회상" 한다.[52] 중일전쟁에 대한, 북지전선에 대한 그의 문학적 재현은 언제나 '회상'의 재구성으로 일관한다.

> 나는 이때에 사변 당시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 7월 7일, 오후 열한시 40분쯤 해서, 북영선 풍대(北寧線 豊臺)로부터, 서쪽, 십리 가까운 지점인, 노구교 부근에서 야간 연습 중에 있던 풍대수비대에게, 별안간 지나군이 총을 놓기를 시작하였다. 아군도 불의의 습격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곧 응전준비를 하는 동시에 삼전중좌(森田中佐)를 보내서 교섭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노구교에서 비로소 생긴 일은 아니다. 그 원인으로는 항일지나(抗日支那)의 아국(我國)의 진의를 이해치 못한데서 생긴 일이다. 왕도(王道) 만주국이 탄생하자, 만주국에서 내여 쫓긴 장학량과 중앙군의 합작으로 만주국의 영토를 침입해서 방화, 약탈을 마음대로 하야, 때때로 사변을 일으키며, 남경정부의 항일정책은 날로 심하여진 데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53]

> 이 비석은 전면에 큰 글자로 충혼비라 새기고, 이면(裏面)에는 전사한 장병의 이름이 새기어 있다. 이 비석을 보고, 또다시 광막한 백사(白砂)를 굽어보니, 저 백사(白砂) 위에 충렬의 뜨거운 선혈이 물들여졌을 때, 또한 북지에 성업(聖業)이 시작된 것이다.[54]

박영희의 애도작업은 일본 제국의 성업을 발견해내기 위한 장치였다. 회상이란 언제나 망각과 그 짝을 이룬다. 즉 회상된 기억 속에는 망각의 흔적이 남아 있게 마련이다.[55] 박영희에게는 일본・만주・지나・조선은 동문동족(同文同族)이기에 동양평화를 위해서 연대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개인주의)에 대항한다는 미명 하에 진행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의 흔적은 철저하게

52) 위의 책, 13쪽.
53) 위의 책, 51~52쪽.
54) 위의 책, 53쪽.
55) 알라이다 아스만(저)/변학수・백설자・채연숙(역),『기억의 공간』(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121~122쪽.

망각된다. 이 망각의 지대에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라는 국책의 기억만이 자리 잡고 있다. 박영희에게 중일전쟁은 기념비적 '역사—기억'이다. 그에게 기념비적 역사란 "위대한 것을 계속 생존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56]이자 역사의 몇 몇 국면의 "치장한 사실들만이 섬으로"[57]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었다.

노구교의 충혼비를 방문한 후 박영희는 북지전선의 현장으로 다시 길을 떠났다. 북지전선에서 박영희 일행이 시찰한 것은 파괴된 토치카와 성벽 그리고 지나군 포로들이 전부였다. 그 어디에서도 전투를 체험할 수 없었다. 기껏 그들이 전쟁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군 병사들의 애국무용담이 전부였다. 북지전선 시찰을 마친 후 그들이 마지막 시찰 장소로 선택한 곳은 통주사변[58] 충혼비였다.

> 이제 최후의 여정으로 통주(通州)에 와서, 통주사변(通州事變)에 희생된 영령 제위에게 참배를 하고, 가려고 찾아왔으니…우리는…참배의 길을 떠났다. 6용사, 12용사의 영령과, 갑배중좌비(甲裴中佐碑)가 있는 구특무기관(舊特務機關)의 황량한 폐가에 들어가 격전의 자최를 회상하면서, 제영령에게 참배하고 분향하였다. 그리고 사변 당시에 가장 비장 참담함을 회상케 하여, 열루(熱淚)에 옷깃을 적시게 하는 공동묘지에 참배하였다. 250주(柱)의 영령께 참배하며, 내려다보니, 흉금이 억색하여 침묵한 가운데, 다만 눈물이 있을 뿐이며, 분노가 일어날 뿐이다. 이 250주 가운데는 조선 사람이 반수(半數)이었다.[59]

박영희는『전선기행』을 집필하기 전에도 통주사변의 희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는 "커다란 절당 같은 집 속에다가 나무 목비(木碑)에 이름을 쓴 영령이 여럿이 안치된 것을 보고 조국의 방위에 순(殉)한 그분들의 충용에 다시 한번 더 머리가 수그려" 짐을 느꼈다.[60] 그런데 그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

56) 니체,『반시대적 고찰』, 303쪽.
57) 위의 책, 306쪽.
58) 통주사변은 1937년 7월 29일 오전 3시경에 발발하였다. 통주는 탕구정전협정(塘沽停戰協定)에 따른 비무장지대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비행기가 출격하여 통주를 폭격하였다. 이에 중국군이 일본군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다.「通州事變에 對한 杉山陸相의 說明要旨」,≪동아일보≫, 1937.8.4일자를 참조.
59) 박영희,『전선기행』, 255~257쪽.
60) 박영희・김동인・임학수,「문단사절귀환보고」, 12쪽.

이었으며, 그 애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애도는 소중한 것의 상실을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애도자의 내면에 기념비적인 묘소를 마련하는 행위이자 타자의 죽음과 현재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는 일이다. 또한 애도는 타자를 상징적 차원에서 내면화하는 작업이다.[61]

박영희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자의 영혼을 위해 명복을 비는 행위이다. 여기서 죽은 자는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차원의 죽음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들의 죽음은 사회적 승인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며, 그 승인의 결과물이 충혼비로 재현된 것이다. 박영희는 조선 문단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망자들의 죽음에 애도를 해야만 한다. 박영희의 슬픔과 애도가 지향하는 바는 죽은 자들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전몰자들의 비장하고 영웅적 행동이다. 박영희의 애도는 전몰자들의 과거 행적을 현실의 장으로 소환하여 '과거—현재—미래'의 시공간을 전시공동체로 단단하게 결속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전몰장병들에 대한 애도작업은 북지전선을 지키고 있는 현역 장병들과 총후의 신민들의 일상을 간섭하게 된다. 박영희는 『전선기행』의 곳곳에서 북지전선에 복무하고 있는 일본군을 보며, "나는 지금 전지에 있는 병정들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고 듣고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격"[62]했다는 감상적인 말을 남발한다. 감격과 감사 다음에는 언제나 "지금도 그 병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다"[63]는 말이 등장한다. 요컨대 박영희의 문장에서는 '감사—감격—미안'이라는 단어가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전쟁에 대한 부채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박영희가 감사와 감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상황은 누런 흙먼지가 코앞의 시야를 가릴 것 같은 북지전선에서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및 장기건설을 위해 매진하는 일본군에 대한 찬사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미안하다'는 말은 자신이 그들과 육체적·정신적으로 합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영희의 생각은 일차적으로는 일종의 열등감, 즉 '반도인'이라는 열등감 속에서 발현된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박영희의 정신을 사로잡는 건 열등감보다는

61) 자크 데리다(저)/진태원(역), 『법의 힘』(문학과지성사, 2004) 참조.
62) 박영희, 『전선기행』, 91쪽.
63) 위의 책, 87쪽.

오히려 부채감에 더 가깝다. 니체는 도덕의 주요 개념인 '죄(Schuld)'가 '부채(Schulden)'라는 극히 물질적인 개념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했다.[64] 죄의 감정과 개인적인 의무의 감정은 곧 부채의식을 양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박영희는 일본제국을 위해 황군처럼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다. 따라서 박영희는 선혈을 흩뿌리며 죽은 자들, 언제나 충혼비에 그 이름을 예약한 현역 장병들에게 일종의 부채감을 느끼는 것이며, 이 부채를 조금이라도 탕감하는 방법이 그들에 대한 미화와 애도작업인 셈이다. 박영희의 이러한 부채의식은 죄의식에서 발원된 것이다. 그 죄의식은 단순히 박영희 개인만의 것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박영희의 시선은 언제나 총후의 조선 민중에게 향해 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망령과 그들에 대한 죄의식은 '살아남은 자'를 숙주로 하여 확대 재생산 된다. 『전선기행』은 조선 문단을 대표하는 박영희의 부채의식이 총후의 조선인들까지 감염시켜 집단적 죄의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미디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선기행』에서 보이는 전몰장병들에 대한 애도작업과 현역 장병들에 대한 '미안함'은 '죽지 못하는 자의 슬픔'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의 시찰 경로는 조선신궁을 시발로 해서 노구교 충혼비 그리고 통주사변에 희생된 영령들을 참배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들의 시찰은 전쟁의 기념비적 공간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성지순례였다. 『전선기행』은 중일전쟁에 대한 한 지식인의 부채의식을 조선 민중 전체의 부채의식으로 확장하는 작업이었다.

VI. 위장된 숭고미와 비장미

앞서 논의 했지만, 최재서는 무섭고 슬픈 감정 그리고 공포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쟁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65] 만약 "피로와 고통, 공포와 절망, 무가치와 허무 등을 특별히 강조"하게 되면 "전쟁 기피의 관념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66] 그러나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

64) 프리드리히 니체(저)/김정현(역), 「도덕의 계보」,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책세상, 2002), 402쪽.
65) 최재서, 「전쟁문학」, ≪인문평론≫, 1940.6, 59~60쪽.

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현실이 아주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었을 때 생성된다. 숭고의 체험은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나의 인식 능력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것과 마주치는 불편한 체험"[67]이기도 하다.

전쟁은 불안과 공포를 동반한다. 그런데 불안과 공포가 미학적으로 체험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하려면 대상을 아주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한다. 숭고란 인간의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자아의 보편적 욕망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감각이다.[68]

박영희가 소설적 문체를 염두에 두고 쓴『전선기행』에서 숭고와 비장이라는 미적 장치는 애국미담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는 북지선선에서 귀동냥한 미담들을『전선기행』의 중요한 대목에 포함시킨다. 목에 총을 맞아 뜨끈한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고 "황군만세"를 외치며 쓰러졌던 박통역,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는 유서를 품고 싸우다 죽은 츠지군조(辻軍曹), 적군의 수류탄을 받아 던지다 순사한 콘도일등병(近藤一等兵)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 적군 쪽에서 수류탄 한 개가 날아왔다.
> 「앗!」
> 할새도 없이, 선두에서 장검을 빼들고 추격하던 십군조(辻軍曹)의 두부(頭部)에 떨어졌다. 군조의 품속에는 자필의 유언서가 들어 있었다.
> ×
> 어머님 전 상서
> 어머니, 신태랑(信太郎)은 북지 제일선에서 건강하게 있사오며,…지나병을 삼사십 명 거꾸러뜨린 후에, 훌륭한 일본의 남아로서 장쾌하게 전사하겠습니다.…명예스러운 백목(白木)의 상자에 담겨서, 제도(帝都) 구단(九段)의 앵화(櫻花)가 필 때에는, 모든 전사(戰士)들과 한 가지, 국운을 축복하려합니다.…
> ×
> 이 유언을 볼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였다. 세계무비의 일본정신의 발현이 아니고 무엇이랴! 진충보국, 죽음으로서 국은을 보답하려는 그 정신이다. 이것이 어찌 또한 군인에게만 있으리요. 일본국민이 다 그러하다. 이것이 일본의 자랑이다.[69]

츠지군조는 몸속에 유언을 품고 죽음을 미리 사는 제국의 병사이다. 그의 열망은 "명예스러운 백목의 상자에 담겨서" 도쿄 "구단의 앵화"의 그늘, 즉 야스쿠니 신사에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중국군을 섬멸하겠다는 츠지군조의 열망과 그 열망이 현실화되었을 때 박영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일본정신을 찬미한다. 진충보국과 국가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길은 결국 야스쿠니에 위패를 보관하는 일이다. 전쟁은 살아서는 무명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영구히 자신의 이름을 만세에 남기는 기회로 호도된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공포와 불안 같은 인간적인 감정뿐 아니라 일상이나 가족과도 가차 없이 단절해야 한다.

> 근등(近藤)은 무엇을 생각했는지…적진에서 날아오는 수류탄을 자기의 손으로 받기 시작했다. 손에 받은 수류탄을 다시 적진을 향해 던졌다.…근등(近藤)은 이렇게 하기를, 몇 시간하였다. 그러나 애석타! 옆에서 날아오는 수류탄을 맞았다. 그는 땅에 쓰러졌다. 전우들은, 그는 이미 죽은 줄 알았다.…이것은 개인의 용감한 기질이 있을 뿐 아니라 즉 황군의 정신이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존귀한 정신의 발현이다.[70]

콘도일등병처럼 평범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인적 능력이 자신의 왜소함과 비교되었을 때 숭고미와 비장미는 극도로 확대된다. 몇 시간동안 적의 수류탄을 손으로 받아 다시 적진으로 던지는 콘도일등병의 모습, 그리고 유서를 품고 야스쿠니에 묻히겠다는 츠지군조의 모습이야말로 전시기 국민이 지향해야 할 전형적인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작가인 박영희는 이들의 미담을 문자텍스트로 주조하여 총후의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실제로 콘도일등병과 츠지군조의 행적이 어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박영희 역

66) 위의 글, 59쪽.
67) 진중권,『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아트북스, 2005), 232쪽.
68) 알렌카 주판치치(저)/이성민(역),『실재의 윤리』(도서출판b, 2004), 235쪽.

69) 박영희,『전선기행』, 220~221쪽.
70) 위의 책, 224~225쪽.

시 일본군 대위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박영희의 사명은 그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가공하여 총후의 독자인 조선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었다. 박영희에게 중요한 것은 전장의 실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풍경을 복제하여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전장—전쟁'의 풍경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박영희의『전선기행』은 히노 아시헤이의『보리와 병정』을 흉내 낸 단순한 복제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전선기행』은 박영희 자신의 정체성과 신체제 하의 식민지 조선 문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미학적 실험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전장'을 경험하지 못한 식민지 조선인들이 보이지 않는 무수한 가상의 적을 향하여 펼치는 미디어 전쟁이었다. 이미 거론했지만,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의 파견을 전후로 하여 다양한 애국미담과 총후미담 그리고 지원병의 수기 등이 신문과 잡지라는 미디어를 타고 식민지 조선을 미디어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 놓고 있었던 것이다.

VII. 나오며: 미디어, 기억, 전쟁담론

박영희의『전선기행』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전쟁문학=국민문학'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박영희의 전선 체험은 지극히 관념적이고 간접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관념은 단순히 관념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국민'의 '국민—되기'를 위한 몸부림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박영희는 '비국민'과 '국민' 사이의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전장의 체험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가공하였다.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의 전장 체험은 충혼비(기념비)를 비롯한 '전쟁—전장'의 흔적들과 어느 정도 가공된 전선의 이야기를 간접 체험한 것이었다. 박영희는 여기서 '전쟁—전장'의 황군과 자신을 상징적 동일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으며 전쟁의 '이미지(像)'를 만들어 갔다. 내전을 경험하지 못한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은 미디어와 각종 콘텍스트들을 통해 전쟁을 발견했으며, 이렇게 발견된 전쟁을 다시 이미지화 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쟁—전장'을 공론화시킴과 동시에 전쟁담론을 완성해 갔다. 따라서 중일전쟁기의 전쟁담론이란 철저하게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담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구성된 전쟁담론이란 대동아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세계평화'였다.

황군위문조선문단사절의 일원이었던 박영희의『전선기행』을 시발점으로 조선에서는 종군작가와 종군문학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기획은 해방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여순사건'의 기행문인 박종화의「남행록」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당시의 종군문학을 가능하게 했던 전범이 바로『전선기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한국전쟁 당시의 종군문학과 베트남전을 형상화한 문학작품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선기행』을 비롯한 '전쟁—전장'에 관한 문학적·문화적 미디어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풍경을 새롭게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촉매로써 활용되었다. 미디어에 의한 전쟁의 체험과 그 회상기억으로 재구성된 전쟁담론을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박영희를 비롯한 제국주의에 협력한 일군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체제 하에서 문인으로, 제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전쟁을 상상하고 구성할 수 있는 실천양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전쟁을 기념비화 했다. 따라서 전쟁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역사—기억'의 문학적 재현방식의 논리인 것이다.

참고문헌

≪만세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경성일보≫; ≪삼천리≫; ≪문장≫; ≪인문평론≫; ≪조광≫; ≪가정지우≫; ≪여성≫; ≪동양지광≫.

官田節子(著)/李熒娘(譯),『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 서울: 一潮閣, 1997.
김윤식,『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도미야마 이치로(저)/임성모(역),『전장의 기억』. 서울: 이산, 2002.
朴英熙,『戰線紀行=皇軍慰問朝鮮文壇使節報告書=』. 京城: 博文書舘, 1939.
알라이다 아스만(저)/변학수·백설자·채연숙(역),『기억의 공간』. 경북: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알렌카 주판치치(저)/이성민(역),『실재의 윤리』. 서울: 도서출판b, 2004.
오카 마리(저)/김병구(역),『기억 서사』. 서울: 소명출판, 2004.
이동희·노상래(편),『박영희전집』(전5권). 경북: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林學洙, 『戰線時集』. 京城: 人文社. 1939.
자크 데리다(저)/진태원(역), 『법의 힘』.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정선태,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론과 종군문학: 『보리와 병정』과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권 2호, 2006, 131~155쪽.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 서울: 아트북스, 2005.
테사 모리스 스즈키(저)/김경원(역), 『우리 안의 과거』. 서울: 휴머니스트, 2006.
프리드리히 니체(저)/김정현(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니체전집 14). 서울: 책세상, 2002.
프리드리히 니체(저)/이진우(역), 『비극의 탄생·반시대적 고찰』(니체전집 2). 서울: 책세상, 2005.
火野葦平(著)/西村眞太郎(譯), 『보리와 兵丁』. 京城: 朝鮮總督府, 1939.

植村友彦 編輯, 『(近衛文麿公演說訓話集)盡忠報國の精神』. 東京: 第一出版社, 1938.

국 문 요 약

이 글은 박영희의 『전선기행』에 대한 연구이다. 논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전쟁—전장'의 기억과 이의 문학적·미학적·정치적 재현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쟁문학이라는 장르의 탄생과 미디어를 통한 애도작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박영희는 전쟁의 실체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재구축된 기억을 동원하여 전쟁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전쟁문학은 신체제를 구성하려는 욕망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개입이었으며 전쟁의 기억을 서사화 하는 역사적 기념물이었다. 이때의 역사적 기념물이란 기념비적 '역사—기억'의 서술에 의해 축적된 결과물이다. 식민지 조선인 문학가가 쓴 전쟁문학은 전쟁의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라 상상과 허구의 집적물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은 전쟁을 상상하고 구성할 수 있는 실천양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전쟁을 기념비화 했던 것이다.

◉ **투고일** : 2007. 10. 15.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박영희**(Pak Yŏng-hi), **『전선기행』**(*Chŏnsŏnkihaeng*), **전쟁문학**(war literature), **시뮬라크르**(simulacre),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 **중일전쟁**(the Second Sino-Japanese War).